

수행 평가 일정 안내

1. 기간 : 2024년 9월 09일(월) ~ 11월 22일(금)
2. 내용 : 2024학년도 2학기 독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
3. 활동 안내
 - 1) 기간 중 한 권의 책을 읽고 활동지를 작성하여 구술 평가에 참여하고 서평을 작성함. (활동지와 서평 양식은 별도 배부)
 - 2) 10월 14일(월)까지 도서 준비(E-BOOK도 가능)-없을 시 감점.
 - 3) 수행 활동 기간 중 국어 시간 활용 8차시 활동→ 총 8차시

단계	개요	차시	일정	활동 내용
1	수행 활동 안내	1~2	9월 9일~13일	평가 안내, 도서 탐색 및 선정
2	읽기	3~4	1~2차시: 10월 14일~28일	책 읽기 및 활동지 작성하기 (김원룡 선생님과 강민우 선생님 시간에 각각 1시간씩 진행)
3	대화하기	6~7	1~2차시: 11월3일~8일	구술 평가
4	서평쓰기	8	1차시: 11월9일~22일	서평 제출

- 4) 서평 제출 마감 11월 22일(금) 24시까지 서평 제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제출)

1단계. 도서 목록

2024 2학기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위한

도서 목록을 안내합니다

장강명,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문학동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가해자를 죽이고 실형을 받고 나온 남자와 여전히 이 남자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가해자의 어머니, 과거부터 이 남자에게 관심이 많았던 여자의 이야기이다. 독특하고 난해한 소설이다. 시간이 순차적으로 흐르지 않고 마구 뒤섞여 있다. 게다가 ‘우주알’이라는 비현실적인 존재까지 등장한다. 하지만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패턴, 우주알 등의 의미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책읽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서로 같이 읽고 얘기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다.

심윤경, <나의 아름다운 정원>, 한겨레출판

격랑의 시대인 1977년부터 1981년, 대한민국 보통의 한 가족사를 순하고 강직한 소년의 시선으로 담아냈다. “따뜻하고 세밀한 묘사와 내면적인 감정의 표현 같은 것들이 설득력 있다”, “성장소설 이상의 성장소설”이라는 평을 받았다.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이야기” “따뜻고 감동적인 인생 최고의 드라마” 등 작품을 향한 독자들의 아낌없는 찬사는 이 작품이 한국문학의 클래식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방증한다.

정세랑, <보건교사 안은영>, 민음사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야기가 나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보건교사 안은영은 까칠하고 투덜대는 성격이지만 장난감 총과 무지개 막대기를 들고 자신에게 부여된 힘을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사하는 인물이다. 작품의 설정은 악령 퇴치물이나 액션영화를 연상하게 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우리 사회에 끼치는 착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작가의 주제 의식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친절이 오염된 세계에 단호히 맞설 거예요!’

한강, <소년이 온다>, 창비

국가가 시민을 상대로 살인과 폭력을 자행한 때가 있었다. 언론이 통제된 탓에 당시의 참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실상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80년 광주를 함께 하지 못했다는 죄의식을 가진 한없이 미안하기만 한 원죄의 대상이었다. 친구 정대의 죽음을 겪은 3학년 중학생 동호가 보내는 도청에서의 마지막 날을 시작으로 정대의 혼, 같이 도청에 남아 있었던 누나와 형 등의 여러 인물들이 각 장의 서술자로 등장하여 5.18 당시와 그 이후를 다양한 시각으로 그려낸다.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응시하는 작가의 시선이 혹시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읽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정지아, <아버지의 해방일지>, 창비

배척과 갈등의 말, 금기어로 여겨져온 ‘빨갱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유령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 시절을 보낸 이들의 세계를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만나는 얽히고설킨 사연들에 빠져들다보면 그들이 빨강지도 파랑지도 않은, 그저 저마다의 삶을 꾸려온 ‘사람’이었음을 알게 된다. 무채색의 크고 작은 파문을 서로에게 일으키며 한 시대를 함께 건넌 이들에게서, 이념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국엔 나약하고 또 강인한 우리 인생이 보인다. 정지아의 소설은 그래서 매력적이다.

최진영, <구의 증명>, 은행나무

사랑하는 연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겪게 되는 상실과 애도의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 혹은 죽음의 의미를 되묻는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최진영은 퇴색하지 않는 사랑의 가치를 전면에서 내세우고 아름다운 문장과 감성적이며 애절한 감수성을 통해 젊고 아름다운 남녀의 열정적인 사랑과 냉정한 죽음에 대해 세련된 감성과 탁월한 문체로 담아내고 있다.

추정경, <죽은 경제학자의 이상한 돈과 어린 세 자매>, 돌베개

부모를 잃은 어린 세 자매가 무허가 컨테이너촌에서 출발해, 대안화폐를 쓰는 낯선 공동체(대안 공동체)로, 어린 소녀들이 철야 노동을 하는 휴대폰 공장으로 과감히 이동하면서, 자본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세상, 자본의 힘에 짓눌린 사람들의 행로, 가난의 대물림,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세상, 그리고 이 모든 난관과 불길한 조짐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포리스트 카터,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아름드리

체로키 인디언인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백인 소년의 이야기. 누구나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야 한다. 주인공 작은 나무에게 직접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대신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책임질 수 있게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참으로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읽으면, 잔잔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자연으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을 것이다.

위화, <허삼관 매혈기>, 푸른숲

아버지에 관한 책. 제목 그대로 매혈 즉, 살아가기 위해 피를 뽑아 파는 허삼관이란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피를 파는 건 바로 힘을 파는 일'이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매혈의 의미를 때로는 무겁고 슬프게, 때로는 익살과 해학으로 드러낸다. 허삼관에 대한 평가 역시 비웃음과 조롱, 연민과 동정, 익살과 해학, 감동과 감탄으로 다채롭게 달라진다. 마지막 장면, 노년의 허삼관이 내뱉는 마지막 한 문장이 그야말로 압권이다.

헤르만 헤세, <데미안>, 민음사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데미안을 통해 참다운 어른이 되어 가는 소년 싱클레어의 이야기이자 성장소설의 영원한 고전.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짐작되는 다른 문학작품이나 이야기도 꽤 된다. 1919년 초판이니 백년도 더 된 소설이지만 성장하고 고민하는 청소년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작품이다.

델리아 오언스, <가재가 노래하는 곳>, 살림

다양한 생명이 숨쉬지만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가혹한 환경에 여섯 살짜리 여자애 하나가 홀로 남겨진다. 주정뱅이 아버지의 폭력에 어머니는 집을 떠나고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마을 사람들은 피하기만 할 뿐 작은 동정도 허락하지 않는다. 카야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 버림받고 또 사랑을 주었다 배반당하며 대자연의 동물처럼 홀로 서는 법을 배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권의 대각선>, 열린책들

개인의 뛰어난 역량이 인류 진보의 원동력이라고 여기는 모니카. 함께 뭉친 집단의 힘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니콜. 두 여성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격돌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다. 서로 다른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격동하는 세계 정세를 움직이며 벌이는 치열한 두뇌 싸움을 보면서 독자들도 세계를 이끄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지, 인류 진보의 답이 어디에 있을지 함께 고민하게 된다.

이민진, <파친코>, 인플루엔셜

역사의 거대한 파도에 굴하지 않고 곳곳하게 자신의 집을 꾸려가는 이민자 가족의 연대기이기 때문이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 뿌리내리고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민자의 삶을 작가는 특유의 통찰력과 공감 어린 시선으로 어루만진다.

2단계. 활동지

■ 잘 먹고, 소화하기

명장면, 명대사 ‘내가 읽은 책은’을 바탕으로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두 가지 이상 적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씁니다.(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감명 받은 부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부분, 재미있는 부분, 재미없는 부분 등 어떤 식으로든 기억에 남는 부분을 적습니다.)

1.

2.

3.

4. 첫 느낌 자신이 읽은 책의 이름, 저자, 출판사를 적고 자신이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을 솔직하게 적어봅니다(제목이나 책 표지를 본 느낌을 솔직하게 씁니다).

5. 데자뷔 책 속 내용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써 봅니다(자신이 겪지
않더라도 또래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상관없습니다).

b. 누구냐, 넌? 이 책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상상해 봅시다. 글쓴이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책을 썼을지 상상해 봅시다.

7. 아! 왜?.. 책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 인상적인 몇 사람을 골라서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자신이 생각하는 해답을 씁니다.

8. 링크링크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책, TV 프로그램, 뉴스, 신문 기사, 영화, 음악, 인터넷 정보 등이 있으면 적어 봅니다(책의 내용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연결해서 써 봅니다).

9. 깨달음 책을 다 읽은 후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으면 적어 봅니다(책을 읽기 전과 책을 읽은 후, 내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풀어씁니다).

10. 기타등등 기세등등 그 외, 이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아무거나 써 보시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or grey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approximately 20 lines visible. The paper has a slight shadow on the right side, suggesting it's resting on a surfac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3단계. 구술 평가

(1) 과정

- ① 자신이 **답변할 문항 번호 2개**를 확인한 후 **아래 열 문제 중 해당 문제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 ② 자기 번호와 이름을 말하고, 자기가 뽑은 문제 번호를 말합니다.
번호순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문제를 먼저 답변합니다.
예시) “1번 서태웅입니다. 7번 문제에 답하겠습니다.”
- ③ 스톱워치를 눌러서 **1분(± 10초)** 동안 자신의 답을 말합니다.
이때는 ‘~어.’, ‘~라고 생각해’와 같이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2) 규칙

- ① 학생은 말할 때마다 위의 구술평가 과정에 따라 자신의 번호와 이름을 말합니다.
- ② 구술평가를 시작하면 선생님께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 ③ 구술평가를 할 때에는 책을 포함해 다른 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

(3) 채점 기준

- 두 번 답하는데, 답변마다 우수, 보통, 미흡으로 채점하고, 1점은 태도 점수
- 태도 점수는 말할 때와 들을 때 상대의 얼굴을 보는지, 다른 데를 보는지 살핍

구술 채점 기준	▶말의 내용
	- 질문의 초점에 맞게 대답하는가? - 내용을 잘 아는가? - 근거 제시가 참신하고 적절한가?
	▶말의 전달력
	- 청중을 고려해서 전달력 있게 말하는가? - 자기 언어로 말하는가? -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가?

물음에 답할 때는 왜 그런지 이유를 꼭 함께 이야기합니다.

4단계. 서평 쓰기

■ 잘 소화해서, 이제 잘 쓰기

1. 활동지 1~10 중에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한 내용을 7가지 이상 고르세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 최소 절반 이상을 써 주세요. 할 말이 많은 부분을 고르세요.)
2. 어떤 순서로 독후감을 쓸 것인가 결정하세요.
(전체 글의 흐름을 생각하고, 각 부분마다 관련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작성합니다.)
3. 이 책을 읽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세요.
(서평 쓰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 당부의 말씀

각각의 이야기에 소제목을 쓰세요. 7개의 이야기거리 중 정말 할 말이 많은 3개를 선택하세요. 아니면 7개 이야기를 묶어서 3개로 정리해도 되고요. 이렇게 만든 세 개의 이야기에 소제목을 각각 하나씩, 세 개 쓰는 것이지요. 소제목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낱말이나 두세 낱말을 묶은 문구, 혹은 짧은 문장 하나를 올리면 됩니다. 이 소제목마다 한 쪽짜리 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 글쓰기가 쉽지요. 그 뒤에 들어가는 말과 나가는 말을 부드럽게 붙여주고 다듬으면 글 한 편 쓰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여러분이 쓴 소중한 글은, 제가 반드시 읽습니다. 판단기준은 간단합니다. 첫째, **쉽게 쓴 글이어야 한다.** 중학교 아주 까탈스러운 동생이 읽어도 쉽게 이해되도록 써야 합니다. 둘째, **줄거리는 30% 이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제가 원하는 글은 1/60억의 글입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써 주세요.

글을 다 쓴 다음에는 고쳐쓰기를 반드시 해 봐야 합니다. 우선 쓴 글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호흡이 딸릴 정도로 문장이 길면 문장을 짧게 끊어 보세요. 한 문장에 하나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면서요. 또한 표현이 어색하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문장과 표현을 다듬어 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가 쓴 글을 부모님이나 동생, 혹은 친구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아보세요. 그 내용을 고쳐쓰기에 담으면 여러분은 더 쉽고, 더 구체적이며, 더 매력적인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매일 100개씩, 석달만 하면 멋진 가슴과 근력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우리 주변에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이 드문 이유입니다. 이번 독서 수업은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된 시간이 여러분의 글쓰기 능력에 든든한 근육이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성과 고민과 감동이 저마다의 찬란한 솔직함으로 가득한 멋진 글을 기대합니다.

글감 배열하여 개요 만들기

3개 이상의 글감을 어떻게 배열하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지 생각해 보고 중간의 내용을 구성하고 처음과 끝을 덧붙여, 글의 설계도(개요)를 만들어 봅시다.

순서	글감 번호	소제목 및 내용 (간단히)	어떻게 쓰나요
처음 들어가는 말			글의 첫인상을 결정지을 부분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면 독자들이 내 글에 빨려들까요?
중간 본문 1			독자에게 책의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또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 경험, 세상과 관련된 일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세요.
중간 본문 2			독자에게 책의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또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 경험, 세상과 관련된 일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세요.
중간 본문 3			독자에게 책의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또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 경험, 세상과 관련된 일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세요.
끝 나오는 말			중간 부분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책에 대한 자신의 종합적인 평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면 됩니다. 처음과 중간을 쓰다보면 자연스레 할 말이 생길 거예요.

※ 중간 내용은 두 개 이상의 글감을 하나로 묶쳐 써도 됩니다.

■ 서평쓰기 편집 요령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1. 맨처음 **[F7]**을 누르세요.

용지 여백이 나오지요. 거기서 위쪽 10, 아래쪽 10으로 하세요.

그 다음 머리말 10, 꼬리말 10으로 하세요. 왼쪽과 오른쪽은 20으로 맞춥니다.

2. 글자모양이에요. **[Alt]+[L]**을 누르세요.

글자크기 10으로 하고요. 장평은 100으로 합니다.

자간(글자간격) 0으로 맞춥니다. 글꼴은 '함초롱바탕'으로 합니다.

함초롱바탕이 없을 때는 '신신명조'나 '휴면명조'나 '신명조'로 합니다.

3. 문단모양이에요. **[Alt]+[T]**

줄간격 160, 들여쓰기 10, 정렬방식 양쪽정렬, 문단간격 위, 아래 모두 0으로 합니다.

여백은 왼쪽, 오른쪽 모두 0으로 합니다.

4. 글 전체 '제목'은 이렇게 하세요.

줄을 띄지 말고 바로 붙여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밑에 책제목을 적습니다.

책제목 : 글꼴 'HY견고딕', 글자크기 14

그 아래에 자기 서평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입니다. 책 제목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붙입니다.

글꼴 'HY견고딕', 글자크기 24로 가운데 정렬해주시고요.

5. 학번과 이름을 쓰세요. 이름은 문서 맨 오른쪽에 놓이게 하세요.

글꼴 'HY견고딕', 글자크기 12

이름 아래 한 줄을 띄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예)

송승훈 이일훈, <제가 살고 싶은 집은>을 읽고

마주 보는 창이 있어야 바람이 생긴다

10100 강○○

본문 시작합니다. 이하 생략

6. 소제목 위 아래로 한줄만 띄세요.

소제목은 'HY견고딕', 글자크기 12로 맞춥니다.

소제목과 본문을 위 아래로 한 줄씩만 띄니다.

7. 쪽번호 매기기 : 쪽 →쪽번호 매기기→넣기

8.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어요.

문단을 시작할 때 사이띄개(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칸을 띄는 행위입니다. 자동 들여쓰기 기능을 이용하

면 저절로 칸이 생깁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이띄개를 눌러서 칸을 비워놓았다면, 나중에 자기가 쓴 글을 모을 때 컴퓨터 화면을 눈이 충혈되도록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서 다시 한 칸 한 칸 지워야 합니다. 엄청나게 지루하고 단순하고 힘든 노동입니다.

편집기술을 처음 볼 때 귀찮고 번거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한번 익혀두면, 컴퓨터 문서작성기 편집에서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두고두고 기본 좋은 기술입니다.

(1) 서평쓰기는 제출 기간 10월 11일(화) 자정 12시이며 구글 클래스룸에 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2) 참고 자료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선생님께 요청하세요.

(3) 파일 이름은 ‘학번+이름+책이름’ 이렇게 붙입니다.

예) 10100 강○○ 기후변화 쫘 아는 10대

(4) 개요만들기 (8쪽)는 수업시간에 작성 후 국어 부장이 견어서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5) 국어 부장은 제출하지 않은 사람 번호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평가 기준 안내

1) 구술 평가

평가 기준 (20점)		배점	비고
1	활동지에 대한 2회의 질문에 우수, 보통 이상의 답변을 한 경우	20	도서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감점
2	활동지에 대한 2회의 질문에 보통, 보통의 답변을 한 경우	18	
3	활동지에 대한 2회의 질문에 보통, 미흡의 답변을 한 경우	16	
4	활동지에 대한 2회의 질문에 미흡, 미흡의 답변을 한 경우	14	
5	활동지에 대한 2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12	

2) 활동지와 서평 쓰기

활동지와 서평 쓰기 평가 기준 (10점)		배점	비고
1	활동지의 항목을 7개 이상 작성하고 서평을 기한 내에 제출했는가?	20	서평 미제출시 3점 감점
2	활동지의 항목을 7개 이상 작성하고 서평을 제출했는가?	18	
3	활동지의 항목을 6개 이상 작성했는가?	16	
4	활동지의 항목을 5개 이상 작성했는가?	14	
5	활동지의 항목을 작성했는가? (4개 이하)	12	

1)번과 2)번에서 자신의 의지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20점 중 기본점수(8점) 부여

3) 세부 평가 기준

- (1) 각 항목은 절반 이상 작성해야 인정(절반 이하일 경우 반 개 처리)
- (2) 백신, 등교중지 등 출석인정결석으로 인한 지연 제출은 출석인정기간 만큼 기한 인정
- (3) 모둠 활동 및 각 차시별 활동에 불성실하게 참여시 1점씩 감점
- (4) 활동지 및 서평 쓰기 관련 기한 초과 시, 분량 및 양식 등 기준 미충족 시 감점

‘1만 시간 동안의 남미’ 서평

우리도 막연한 미래에 대해 끊임없는 여행을 하고 있다

10100 진○명

1.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책 속의 매력

일단 ‘1만 시간 동안의 남미’는 필독 도서로 선생님께 여러 책을 소개받고 내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책이다. 겉표지부터 그랬다. 하얗고 도톰한 표지에 시원한 필체로 쓰인 제목, 그리고 진정 자유로워 보이는 필자의 웃는 얼굴이 알 수 없게 내 마음을 이끌었다. 1만여 시간동안 남미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쓴 책이라는 스토리를 듣고 나서 마침내 나는 ‘내 책이다’라는 느낌을 얻었다. 어쩌면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 자유로운 삶을 너무나 갈망해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이야말로 내가 이 답답한 삶 속에서 책을 읽는 순간이나마 간접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여행이라는 게 그렇다. 답답한 일상을 뒤로한 채 아무 걱정 없이 어디론가 떠나는 여행. 정말 멋진 자유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열정과 자유의 대륙 남미, 내겐 꽤 생소한 대륙이기에 더욱 흥미를 갖고 책장을 넘겼다. 우선 이 두툼한 책이 거부감 없이 책장이 술술 넘어간 건 박민우라는 사람만의 매력이 아닌가 싶다. 물론 여행지에 대한 사진이 있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차분하고 가지런한 문체의 일반 책들과는 달리 자신만의 거칠고 투박한 직설화법으로 책을 써내려갔다. 어쩌면 그의 거칠고 투박한 문체와 남미라는 대륙이 어울려서 이 책이 더 흥미로울 수도 있다. 박민우라는 자유로운, 아니 자유로워지고 싶은 한 남자가 들려주는 생동감 있고 유머 있는 남미 여행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 쉴 새 없이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2. “떠나고 싶어!”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을 뽑아보라면 나는 맨 처음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다. 처음 부분에서 내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어느 때처럼 지루함에 파묻혀 두꺼운 책을 쿵 하고 덮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 장을 넘기면 네 사람의 그림자 사진과 함께 글이 쓰여 있다.

“배부른 소리하네. 먹고 살기 바쁘데 여행 타령이나 하고…….”

“사는 거 다 똑같다. 다를 것 같아도 다를 거 없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미를 여행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우려이다. 거기에 박민우의 오랜 여행의 시작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다. 비행기 타기 몇 시간 전에도 게으름 탓에 준비도 안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남미 땅을 처음 밟았을 때도 장염과 몸살로 호된 신고식을 치른다. 이러는 자신에게 작가는 스스로에게 화를 낸다. 그리고 남미까지 와서 짐도 제대로 풀지 않은 채 덩그러니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고 싶어!”라고 외치며 그토록 자신이 원하던 여행에 대한 간절함을 표출한다. 아마 이 때의 간절함이 이 뒤에 그의 앞에 펼쳐질 방대한 남미라는 대륙과 어울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다. (와하카에서 겔라게차라는 축제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패기 있게 들어가려 발버둥 치는 장면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에서 두 번째로 인상 깊은 부분을 꼽자면 바로 카를로스와의 만남이다. 마스코타라는 곳에서 작가는 카를로스라는 사람을 만난다. 처음 보는 동양 사람에게 인정도 많고 친절한 카를로스 덕분에 편히 여행을 하고 편히 쉬고 또 편히 먹을 수 있었다. 나를 인상 깊게 만든 구절은 바로 이 부분이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도 떠나야 함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좋고 좋아도 떠남의 설렘만 못한 것, 확보된 행복보다 불안정한 미래가 더 짜릿한 것, 나그네의 유전자를 가진 이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 편안함 속에서 나왔다면 당연히 카를로스라는 정 많은 사람과 함께 여유를 누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을 읽고 박민우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진취적이고 진정으로 자유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 진정한 자유란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닌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 속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고단하고 답답한 삶에만 적응해 찌들어있던 내게 뭔가 뽕 뚫리는 느낌을 가져다 준 구절이었다.

3. 남쪽으로 튀어

영화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보다가 문득 생각난 영화가 있다. 바로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한국에서 리메이크한 ‘남쪽으로 튀어’ 라는 영화이다. 이 영화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독립 영화 감독 최해갑(김윤석 분)이 국가를 상대로 벌이는 요절복통 투쟁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국가를 상대로 불합리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남쪽 시골마을로 이사를 가면서 그 곳에서 겪는 에피소드가 주 소재이다.

물론 이 영화와 ‘1만 시간 동안의 남미’ 라는 책은 차이가 많지만 난 작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영화의 주인공인 최해갑과 작가 박민우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다. ‘남쪽으로 튀어’에서 최해갑은 이 책의 작가처럼 무언가에 얽매여있지 않은 사람이다. 영화에서 나오듯 국민이길 거부하고 tv 수신료를 내라니까 tv를 안 본다며 던져버리고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라는 작품을 만든다. 못마땅한 건 안 하고 할 말은 하고 사는 자유로운 최해갑의 모습에서 박민우의 모습을 봤다. 물론 여러 차이가 있는 두 인물이지만 무언가에 얽매이기를 싫어하고 자유로움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통된 면이 있다.

영화에 나오는 최해갑을 보면서, 이 책의 저자를 보면서 나는 부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한 간접경험으로 잠시나마 구속 없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주변의 구속을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자기 방식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어느 샌가 그 인물들에 대한 부러움을 느끼고 있었고 공통점을 떠올릴 수 있었다.

4. 여행, 그리고 박민우라는 사람

“여행은 나의 아픔과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거룩한 퍼포먼스다.”

이 책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나오는 구절이다. 사실 이 책에서 내가 가장 맘에 와닿았던 말이기도 하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의 고통에서, 일상에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려할 때 여행을 간다. 나도 그렇다. 답답하고 묶여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을 때 끊임없이 드는 생각은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다. 누군가 내게 “미래에 해보고 싶은 게 뭐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항상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한다. 유럽을 가이드 없이 혼자 무기한으로 여행하는 것. 여행이라는 단어에 설렘이 있는 걸까. 아니면 설렘 없는 삶에 지쳐버린 걸까. 나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 너무도 뻘하다. 대부분 비슷한 삶을 살고 있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런 지루함 속에서 살아가는 와중에 이 책에서 풍겨져오는 박민우만의 유쾌함과 남미에서의 생생함이 더욱 부럽고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렇다고 이 책에서 나오는 박민우의 남미 생활은 그리 호화롭고 편한 여행은 아니다. 노트북도 잃어버

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다반사가 되니 조금 더 견디고 견뎌 실낱같은 희망으로 다른 도시에 가면 다시 배시시하고 웃어버리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박민우라는 사람에게서 ‘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다. 그는 글을 쓰는데 있어 자신의 감정을 백프로 표현해 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 같다. 돈도 없고 먹는 것을 밝히고 힘든 것도 싫어하고 게으름도 피우며 남미의 대륙을 느낀 그대로 표현한다. 기분이 나쁠 땐 기분이 나쁘다고, 기분이 좋을 때는 너무도 행복해서 미쳐버릴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 또 그렇게 표현한다. 박민우처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고, 시련을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할지언정 일단 부딪히고 보는 그런 거침없는 모습이 좋다.

5. 1만 시간 동안의 남미에서 본 우리들의 삶

‘1만 시간 동안의 남미’를 다 읽고 나니 책을 다시 한 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책을 우리의 삶과 연관시키면 어떨까는 내 생각이 꽤나 오랜 시간동안 고뇌의 시간을 갖게 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는 와중에는 그저 저자처럼 자유롭게 구속 없는 여행을 부러워만 했다면 2편에서는 그런 삶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아까도 말했듯 작가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남미를 여행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게 아니다. 넉넉지 못한 재정 탓에 항상 궁핍하고 떠돌아다니고 잘 곳, 먹을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남미에서의 주된 일상이었다. 또한 치안이 안정되지 못한 남미에서 언제 자신에게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갱스터들을 경계하고 피해 다니는 데에 난항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다시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열정이 있는 가슴으로 어찌면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여행을 지속한다. 난 여기서 우리들의 삶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았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끊임없는 실패와 번뇌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삶에 불평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어찌면 더 좋은 날을, 더 행복한 삶을 만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과 기대감에, 또 그 설렘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고통과 번뇌의 시간 속에서 더 좋은 사람과 좋은 곳을 기대하며 새로운 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는 박민우처럼, 우리도 어찌면 막연한 미래에 대해 끊임없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다. 실패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삶의 여행을 멈출 수도 없는 게 바로 인간이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저자가 이런 점까지 생각해서 이 책을 쓴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그저 그가 남미에서 느낀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지만 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을 박민우라는 인물 하나로 보는 느낌이라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기에 나는 이 책에 더욱 애정이 간다. 모처럼 두툼한 책을 읽고 그 여운에 파묻혀 생각하다보니 뿌듯한 기분이 든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며 늘 머릿속에서 맴돌 것 같은 책이다.